

Pfizer, 2005년 4/4분기 매출 3% 감소

세계 최대의 제약기업인 미국 Pfizer는 2005년 4/4분기 매출이 27억3000만달러로 2004년 4/4분기에 비해 3% 줄었다고 발표했다.

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보다 21% 상회한 수준으로 평가했다.

Pfizer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품인 콜레스테롤 치료제 리피터 매출이 12%, 카듀엣이 272% 신장했으며, 8억달러의 영업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.

주당 순이익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0.37달러로 뉴욕 증시에서 Pfizer의 주가는 4% 상승해 1월20일 24.97달러를 기록했다.

주가 상승은 Pfizer그룹의 경영결과 발표에 따른 영업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.

<화학저널 2006/01/24>